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응용한 번역 격률: 한-영 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김도훈
(부산외국어대)

1. 서론

번역에 있어 의사소통의 양 당사자는 출발어 저자와 도착어 독자다. 번역가의 역할은 이들 간의 ‘의사소통 가교’가 되는 것이며 번역의 성패는 원활한 의사소통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듯 번역의 핵심 요인이 의사소통이라는 전제를 수용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 그라이스(Grice)의 대화 격률(Conversational Maxims)을 응용해 일종의 ‘번역 격률’을 제시한다면 번역 실무의 지침, 더 나아가서는 번역 품질 평가의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발화가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력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한다. 이러한 협력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라이스와 스

트로슨[Grice & Strawson(1956)]의 의미론 연구에 화용론적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도출된 그라이스의 협력 원칙(Cooperative Principle)은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 있어 대화의 방향 및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만큼 기여를 하라.”이며 구체적인 대화 격률은 아래와 같다(Grice 1975: 45-46).

표 1. <대화 격률>

격률	내용
양의 격률 (Quantity)	①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② 필요 이상으로 기여도(contribution)를 유익하게 만들지 마라.
질의 격률 (Quality)	① 거짓이라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마라. ② 적절한 증거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지 마라
관계의 격률 (Relevance)	①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방법의 격률 (Manner)	- 명확하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① 불확실한 표현을 삼가라. ② 모호성을 피해라. ③ 간결하게 말해라(상황함을 피해야 한다.). ④ 순서에 따라 말해라.

물론 위의 격률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즉각적인 의사소통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화자가 협동 원칙을 지키려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청자가 가정하며, 함축(implicature)¹⁾을 고려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하지만 동일·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적합한 함축에 도달하기 훨씬 더 수월한 반면 번역—특히 한국어-영어 번역 등의 상이한 문화

1) ‘함축’은 그라이스가 1967년~1968년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강연(William James Lectures)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광의의 일상적 함언(implication)과 협의의 철학적 함의(entailment)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실제 말해진 것(what is said)과 함축된 것(what is implied)과의 구분에 의존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지킬 것으로 요구되고 기대되는 네 가지 격률을 불필요하게 위배할 필요는 없다. 이는 그라이스의 격률이 간접적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을 결정하고 발화의 명제가 진리 조건적 내용 외에 발화에서 영역할 수 있는 부가 정보, 즉 함축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간의 번역-에 있어서는 실제적·의미적 부동성³⁾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적합한 함축에 도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다. 때로는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가정이 추론보다 선행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함축이 추론될 수 없다. 따라서 번역가는 출발어 텍스트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착어 독자가 저자의 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그라이스의 격률을 번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따라 필자는 ‘특수한 의사소통 양식으로서의 번역⁴⁾’이 내포하는 특수성을 반영해 그라이스의 격률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한 번역 격률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번역 격률>

격률	내용
양의 격률 ⁵⁾	① 도착어 독자가 텍스트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정도에 국한해 정보를 첨가해라. ② 출발어 텍스트의 정보를 임의로 생략하지 마라.
질의 격률	① 출발어 저자가 말한 내용에 충실해라. ② 도착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관계의 격률	① 도착어 텍스트가 도착어 독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방법의 격률	① 출발어 저자가 출발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착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라.

- 3) 스톨제(Stolze, 1992)는 출발어 문화권의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 부재한 경우를 ‘실제적 부동성’으로, 출발어 문화권의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 존재하지만 출발어 문화소의 뜻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원치 않는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적 부동성’으로 정의했다(김효중 2004: 39에서 재인용).
- 4)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발신자, 수신자, 단일 언어를 매개로 한 메시지, 의사소통 상황의 4대 요소로 구성된다. 반면, 번역에서는 메시지가 단일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의 전이를 거쳐야 하고 출발어 독자와 인지적 축적물 및 문화적 전제를 달리 하는 새로운 독자(도착어 독자)가 등장하며 중개인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번역가가 1차적 수신자가 되었다가 다시 2차적 발신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정호정 2001: 170).
- 5) 그라이스의 분류와 달리 ①항과 ②항의 순서를 바꾼 것은 ②항에 위배되는 사례가 보다 빈번하기 때문이다. 번역가에 의한 정보 첨가로 인해-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도착어 텍스트가 양적으로 확장되는 현상은 매우 일반적이다(정호정 2002: 168-172).

본 논문에서는 위의 번역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번역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의사소통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한-영 번역만을 사례로 다루었는데 이는 영-한 번역과 달리 한-영 번역의 경우 도착어 독자가 상대적으로 출발어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번역 변이가 불가피하고 번역가로서는 번역 방법 선택에 있어 자신의 직관과 더불어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번역 격률 I: 【양의 격률】

번역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전제를 보유하고 있는 출발어 저자와 도착어 독자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특정 정보를 첨가하거나 생략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양의 격률을 최대한 준수하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반대로 양의 격률을 불필요하게 위배하면 텍스트가 지루해지거나 도착어 독자가 저자의 의도에 접근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실제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양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1

(가) 부산으로 옮겼던 서울이 다시 돌아왔던 무렵의 일이다. (최인훈 1960/1989: 63)

(나) **The war was over**, the capital back in Seoul. (진경자 옮김 2003: 7)

도착어 텍스트 (나)를 자세히 보면 출발어 텍스트 (가)에서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정보, 즉 ‘The war was over(전쟁이 끝났다)’라는 내용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착어 독자가 ‘한국전쟁’과 ‘피난’에 대한 인지적 축적물⁶⁾이

6) 통번역학자인 Lederer(1994)가 제시한 인지적 축적물(bagage cognitif)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을 첨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나)의 정보 첨가는 앞으로 살펴볼 관계의 격률을 지키기 위한 번역가의 의도적 선택일 것이다. 번역가가 서로 이질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을 맺어주는 지식중개인(knowledge broker)이며 도착어 독자에게 생소한 출발어권 문화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제공하는 것이 소임(Neubert & Shreve 1992: 54)이라는 관점에서는 합리화될 여지도 있다. 특히 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지시적·함축적 의미를 도착어에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지적 축적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영 번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번역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번역가는 도착어 독자의 인지적 축적물의 범위 및 깊이를 정확히 측정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에 국한해 이러한 보상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지식까지 과잉 공급할 경우 텍스트를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Anderson 1986: 5). 또한 도착어 독자로서는 어디까지가 출발어 저자의 글이고 어디까지가 번역가의 글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위의 경우, ‘한국전쟁’과 관련한 인지적 축적물이 도착어 독자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조사한다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인지적 맥락을 통해서도 유추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의 격률을 위배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참고로, <표 1>의 그라이스의 양의 격률이 각기 다른 정보의 가짓수(數)에 관한 것인 반면 그라이스의 방법의 격률 ③항은 동일 정보에 대한 표현의 간결성에 관한 것이다(구현정 2005: 121).⁷⁾ 필자가 제시한 번역 격률 역시 이러한 관점을 수용했다.

Goodman(1982)의 세상지식(world knowledge), Omaggio(1986)의 내용 스키마타(content schemata), 그리고 James(1987)의 형식 스키마타(formal schemata)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인지적 맥락(contexte cognitif)과는 달리 텍스트를 읽기 이전에 이미 뇌 속에 중·장기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총체적 지식으로 모든 기억과 감정을 총칭하며 지식의 사용 방법까지도 포함한다.

7) 필자 역시 그라이스의 격률을 존중하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각 대화 격률의 정의가 중복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관계의 격률이 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격률 준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번역 격률 제시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부족하나마 보충하려 했다.

양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2

- (가)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짐승이 하는 짓쯤으로만 알고 있었다. 혹여 그런 일을 하면 탁 죽어지는지도 모를 일로 알았다. (김동인 1925/1996: 25)
- (나) That wasn't the work of a person; she knew it as the type of thing that only an animal does. Or if you did that kind of thing, for all she knew you might crash down dead on the spot. That was how she saw it. (O'Rourke 옮김 2000: 91)

(나)의 'That was how she saw it'은 번역가가 임의로 추가한 부분인데 이는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이 부분이 없다고 해서 내용이 모호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첨가는 번역 텍스트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번역학자인 베이커는 이를 '명시화 가설(explicitation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Baker 1993: 243-245). 즉, 출발어 텍스트에 비해 도착어 텍스트가 보다 논리적이고 이해가 수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번역가가 내용을 첨가하고 출발어 텍스트에서 내재화된 내용까지 명시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논리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양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3

- (가)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은 그릇이 그녀의 물음에 그만큼 대꾸해 주었다. (최인훈 1966/1989: 101)
- (나) The wet bowl told her that the noodles had just been finished by somebody who should be around somewhere in the kitchen. (이상옥 옮김 1980: 140)

앞서 살펴본 예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인데, (가)의 '그만큼'을 (나)에서는 명시화했다. 다시 말해, (가)는 독자로 하여금 상황을 추론하게 만드는 반면 (나)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 그리고 맥락에서 추정 가능한 정보까지 명시화함으로써 – 상상력과 추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정보 추가 및 명시화 없이 'The wet bowl was enough to answer her questions.'만으로도 충분하리라 판단한다.

아래에서는 위와는 달리 번역에서 정보의 누락 또는 생략이 발생함으로써 양의 격률을 위배한 사례를 살펴보자.

양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4

- (가) 내 방 미닫이 위 한 곁에 칼표 딱지를 뱃에다 낸 것 만한 내-아니! 내 아내의 명함이 붙어 있는 것도 이 풍속을 좇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상 1936/1996: 216)
- (나) We surely were fashionable enough to stick to the custom; at a corner above the door, we tacked my wife's name card as large as a train ticket. (안정효 옮김 2001: 10)

주인공의 독백이 대부분인 이 작품에서 (가)에 나오는 ‘내-아니!’라는 부분은 글의 전개상 매우 중요하다. 집을 대표하는 문패를 미닫이 문 위에 붙이는 풍속이 있는 동네에서, 독백을 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은 집안의 가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돈을 벌어 오기 때문에 아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씩씩한 마음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이의 번역인 (나)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했다. (나) 자체만을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독자의 작품 전개에 대한 이해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양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5

- (가) 나는 조소(嘲笑)도 고소(苦笑)도, 흥소(哄笑)도 아닌 웃음을 얼굴에 띠고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본다. (이상 1936/1996: 223)
- (나) With a smile that is neither a sneer nor a cheer, I looked up at her radiant face. (안정효 옮김 2001: 10)

주인공이 짓는 표정은 조소(嘲笑: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웃음)도 아니고 고소(苦笑: 마지못해 짓는 쓴웃음)도 아니고 흥소(哄笑: 입을 크게 벌리거나 떠들썩하게 웃음)도 아니다. 하지만 (나)에서는 번역가가 ‘고소’를 생략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출발어 텍스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착어 독자가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고소’는 ‘a wry smile’이기에 이를 사용해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다. 다만, ‘조소’, ‘고소’, ‘흥소’에서 의도된 음의 반복을 통한 운율을 재현시키기 위해 ‘sneer’, ‘cheer’를 번역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면서 ‘고소’를 생략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운율 번역의 관점에서는 그 노력을 인정해야 하며 ‘소리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양의 격률에 위배되는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번역가가 지나치게 장황한 부연을 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첨가하는 경우다. 물론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지식 및 지식 구조, 즉 인지적 축적물과 연관을 맺어야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질적인 문화 간의 번역에서는 정당화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출발어 독자와 도착어 독자의 인지적 축적물의 상이성 및 격차를 해소하는 정도에 국한해 첨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번역가의 과시욕 또는 명시화 욕구 등으로 인한 첨가는 피해야 한다. 둘째, 생략이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주로 도착어 텍스트의 완전성을 번역 평가의 주요 잣대로 삼는 관행에서 비롯되는 오류로 보인다. 생략은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예: 성인 문학을 아동 문학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아동 문학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분을 생략하는 경우, 검열, 소리 효과 재현을 위한 선택 등) 외에는 삼가야 한다.

3. 번역 격률 II: 【질의 격률】

그라이스의 질의 격률의 핵심은 ‘진실만을 말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 내용을 언급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응용해 ‘출발어 저자가 의도한 바에 충실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출발어 텍스트와 상이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번역 격률을 앞서 제시했다(<표 2> 참조). 구체적인 논의는 아래 번역 사례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자.

질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1

- (가) 땀과 기름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왜목수건**으로 닦으며 [...] (현진건 1924/1996: 72)
- (나) [...] wiping the mixture of sweat and rain that was running down the back of his neck with a greasy **Japanese cotton handkerchief**. (O'Rourke 옮김 2000: 217)

(가)에 나오는 ‘왜목수건’의 ‘왜목(倭木)은 ‘광목(廣木)’의 잘못된 말이다. ‘왜목수건(倭木手巾)’은 광목으로 된 수건이며 흰 무명실로 거칠게 짠 폭이 넓

은 천이다. 고급 수건은 결코 아니다. 손수건도 아니다. 그런데 번역가는 (나)에서 ‘왜(倭)’를 ‘일본(日本)’으로 추측한 나머지 ‘Japanese cotton handkerchief’로 옮겼다. 이는 타당한 근거 없는 추측에 기초해 번역을 한 것으로 질의 격률에 위배된다. ‘Japanese’는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 ‘handkerchief’도 ‘towel’로 바뀌어야 한다. 이처럼 질의 격률을 위배할 경우 도착어 독자는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에 접근하기 힘들고 오인할 수 있다. 때로는 엉뚱한 연상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위의 경우 저자가 의도한 바는 ‘서민적인 국산 수건’인데 도착어 독자는 ‘고급 일제 손수건’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질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2

- (가) 어떤 날 밤, 그는 **고구마** 한 바구니를 잘 도둑질하여 가지고, 이제 돌아오려고 일어설 때에, 그의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서서 그를 꼭 붙들었다. (김동인 1925/1996: 26)
- (나) One night after she had successfully stolen a basket of **potatoes**, and as she was rising to her feet about to go home, a black shadow standing behind her grabbed her tight. (O'Rourke 옮김 2000: 92)

(가)의 ‘고구마’를 (나)에서는 ‘potatoes(감자)’로 번역했다. 하지만 주인공 복녀가 왕 서방 밭에서 훔친 것은 분명 고구마다. 이 글의 제목도 『감자』이지만, 이는 과거에 고구마를 감자(감저)라고도 불렀기 때문이다.⁸⁾ 하지만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sweet potato(고구마)’를 ‘potato(감자)’로 부르지 않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작물이다. 전자는 줄기 저장 식물인 반면 후자는 뿌리 저장 식물이다. 껍질, 색깔, 영양분의 형태도 다르다. 결국, 질의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었다. (나)의 ‘potatoes’는 ‘sweet potatoes’로 바뀌어야 한다.

질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3

- (가) 그녀는 **손가락 같은 것**을 쭉 찢어내어 그에게 내밀며 먹으라고 했다. (황석영 2001: 36).

8) 즉, 김동인의 『감자』는 고구마를 가리킨다. 영조 때 동래부사 강필리가 최초로 집필한 고구마 재배법 책의 제목도 『감저보』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고구마를 감자(감저)라고 부르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다. 단, 감자를 고구마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나) She tore off a strip of the red stuff, about the size of a finger, and held it out to him. (전경자 옮김 2005: 38)

(가)의 경우, 중국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손가락 ‘모양’의 음식에 대해 주인공이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나)에서는 그 음식을 손가락 ‘크기’로 묘사했다. 이는 질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인데, 결과적으로 해당 장면의 음산한 분위기와 중국 아주머니가 건네준, 사람 손가락을 연상시키는 음식을 보고 주인공이 느꼈던 공포를 도착어 독자가 대등하게 느끼기 힘들다.

질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4

(가)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개울에서 떡 감고, 바지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 (김동인 1925/1996: 21)

(나) Now, Pok-nyo, in the middle of this, of course regarded it as perfectly normal to bathe naked in the stream in summer with the girls from the other houses, who had grown up, and to run around the district with nothing but trousers on. (O'Rourke 옮김 2000: 85)

(가)에서 ‘바지바람으로’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은 속바지만 입고 다녔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처럼 번역을 하면 윗도리도 입지 않은 채 바지를 하나 입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underpants’ 또는 ‘drawers’ 등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질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5

(가) “뭐가 먹고 싶니?”
“사이다, 포도, 라면, 빵, 사과, 계란, 고기, 쌀밥, 김.” (조세희 1978/2000: 23)

(나) “What do you want to eat?”
“Cider, grapes, noodles, bread, apples, eggs, meat, rice and weed.” (전경자 옮김 2002: 23)

(가)의 ‘사이다’를 (나)에서는 ‘Cider’로 번역했다. 도착어 문화권에서는

‘Cider’는 사과술(英), 사과주스(美)의 뜻을 갖는 반면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일종의 무색 탄산음료에 국한된다. ‘Soda pop’ 등으로 옮기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상기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질의 격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도착어 독자가 출발어 저자의 의도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거나 엉뚱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격률과 달리 질의 격률을 위배할 경우 바로 오역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질의 격률을 위배하는 번역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4. 번역 격률 III: 【관계의 격률】

그라이스의 관계의 격률은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며,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소한 주어진 주제와 관계가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다(구현정 2005: 115-116). 이 격률은 크게 담화와의 관계와 독자와의 관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이다. 이는 담화와의 관계는 출발어 저자의 과제인 반면 도착어 텍스트가 새로운 독자(도착어 독자)와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번역가의 고유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의 격률은 양의 격률(특히 부등성 해소를 위한 양적 확장) 및 방법의 격률 중 ‘간결성’과도 관계가 있다(주로 상충 관계에 있다). 번역이 새로운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계의 격률은 네 가지 격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외연이든 함축이든, 의미는 맥락과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 간에는 맥락과 전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이성 때문에 도착어 독자와 도착어 텍스트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의사소통 자체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번역 사례를 보면서 논의를 이어가자.

관계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1

- (가) 나 백화는 이래배두 인천 노랑집에다, 대구 자갈마당, 포항 중앙대학, 진해 칠구, 모두 겪은 년이라구. (황석영 1973/2000: 215)
- (나) I have been through the ‘Yellow House’ at Incheon, the ‘Gravel Yard’ at

Taegu, the 'College' at Pohang, the 'Seventh District' at Incheon, and that is not for nothing. (김유창 옮김 2000: 190)

(가)의 경우, 주인공 백화의 과거 및 현재의 모습을 떠올리기 위해 출발어 독자는 인지적 축적물을 동원하게 된다. 저자가 백화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요소들(인천 노랑집, 대구 자갈마당, 포항 중앙대학, 진해 칠구)에 관한 인지적 축적물을 동원해 백화의 과거를 떠올리고 그녀의 현재 모습과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물론 출발어 독자라고 해도 개개인의 인지적 축적물이 반드시 일치하거나 공유된다고 말할 수 없기에 이해의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한 문화권 내에서는 인지적 축적물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유의 폭이 넓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Lederer 1994: 37-38). 마찬가지로 (가)의 경우에도 네 가지 문화소(인천 노랑집, 대구 자갈마당, 포항 중앙대학, 진해 칠구)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에 대한 축적물의 공유만 있어도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와는 달리 도착어인 (나)의 경우 단순히 음을 차용해 영어로 옮겼는데, 과연 출발어 독자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지적 축적물이 도착어 문화, 그리고 도착어 독자에게 존재하거나 동원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배경 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다. 독자는 텍스트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언어 및 문화에 기초한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또한 독자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관계가 있을 때만 새로 주어진 정보가 의미를 얻게 된다. 물론 도착어 독자 중에서 개인에 따라 인지적 축적물의 차이가 있어 상기 텍스트와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한 문화권 내에서는 유사한 행동 및 반응 양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면 이러한 인지적 축적물은 크게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Ellis 1992: 45). 참고로, (나)의 경우 질의 격률에도 위배된다. 마지막에 열거되어 있는 '진해 칠구'를 'Seventh District at Incheon'이라 옮겼기 때문이다.

9) 모두 한국의 대표적 집창촌(集娼村)이며 이 중 일부에 대한 인지적 축적물만 공유되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백화가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임을 알 수 있다.

관계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2

- (가) 그들은 국민학생답게 일제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물론 모자도 벗고) 헤어졌다. (신영복 2008: 33)
- (나) They all bowed (of course, removing their caps) to me as politely as children should and departed. (조병은 옮김 2008: 32)

(가)의 ‘국민학생답게’는 ‘규율을 잘 따르며 예의바르다’라는 함축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과 달리 ‘국민학생’은 현재 쓰이지 않는 단어이며 전근대적이라는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의 번역인 (나)에서는 이 부분을 ‘children’으로 옮겼으며 ‘아이들이 예의바르게 고개를 숙여-모자도 당연히 벗고-인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전제의 상이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회·문화적 전제의 상이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부연 설명을 번역가가 간략히 제공하거나 (가급적 번역가의 부연 설명이라는 점을 드러내면서) 적절한 등가 표현을 찾아내 도착어 독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as well-disciplined boys’ 또는 ‘~as nice school boys’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관계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3

- (가) 그 명희가 자라면서 다방종업원이 되고 [...] (조세희 1978/2000: 94)
- (나) Myeong-hui, as she grew up, worked in a tea room [...] (전경자 옮김 2002: 23)

상기를 보면 (가)의 ‘다방종업원’을 (나)에서는 ‘worked in a tearoom’이라고 번역했다. (나)는 질의 격률과 더불어 관계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이다. 참고로, ‘tea room’은 영국식 표현으로 ‘tea house’ 또는 ‘tea shop’이라고도 부르는데, 단순히 커피, 차, 케이크, 샌드위치를 파는 장소다. 그러나 (가)에서 명희가 다방종업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하지만 도착어 독자로서는 이 부분이 글의 전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 한국의 ‘다방’이 어떤 곳인지, ‘다방종업원’의 역할이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도착어 독자로서는 텍스트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

관계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4

- (가) 그 중에서 손님을 몰색하는 김첨지의 눈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퇴물**인 듯, 난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이 띄었다. (현진건 1924/1996: 75)
- (나) Among them, a woman who looked like an **ex-kisaeng** or a playgirl student, with a western hair-do and wearing high-heel shoes and even a crap thrown over her shoulders, caught Kim Chomji’s fare-searching eye. (O’Rourke 옮김 2000: 221)

‘기생’을 (나)에서처럼 아무런 설명 없이 음을 그대로 차용하면, 도착어 독자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쉽지 않다. 또한 ‘퇴물’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업에서 물러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ex-’에는 ‘물러났다’는 의미가 있지만, ‘낮잡아 본다’는 함축적 의미는 없다. 좋은 번역이라면 외연은 물론 함축까지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goner’ 또는 ‘has-been’ 등의 표현을 활용한 재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상기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관계의 격률을 위배하게 되면 번역이라는 특수한 의사소통의 ‘새로운’ 참여자인 도착어 독자가 텍스트와의 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계의 격률이 양의 격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결국, 번역가는 관계의 격률을 지키면서 양의 격률을 위배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다만, 번역이라는 특수한 의사소통 내에서는 하나의 격률을 지키려면 다른 어떤 격률을 불가피하게 위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5. 번역 격률 IV: 【방법의 격률】

그라이스의 격률 중 번역에 접목하기 가장 힘든 것이 방법의 격률이다. 이는 출발어 저자의 메시지 전달 방법에서 자유롭기 힘든—또한 자유로워서는 안 되는—번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앞서 이 격률을 번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출발어 저자가 출발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착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변형한 번역 격률을 제

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텍스트 기능 및 유형에 따라 번역 전략이 달라진다고 주장한 번역학자 라이스(Reiss)에 의해서도 지지된 바 있다. 그는 소설과 같이 지배적 기능이 표현적 기능(미적 효과 중심)인 텍스트 유형을 번역할 때는 도착어 텍스트에서도 반드시 미적 기능 및 효과가 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저자-적응(author-adapted)¹⁰⁾’ 번역 전략이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유사하거나 대등한 미적 효과가 재현될 수 있다고 논증했다(Fawcett 1997: 104-107에서 재인용). 물론, 출발어 저자의 정보 전달 방법이 도착어의 언어 체계 또는 지배적 문체에 의해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될 것이다.

상기를 살펴보면 필자가 제시하는 방법의 격률은 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체는 작가의 글쓰기 기법, 즉 정보 전달 및 표현 방법과 형식의 총합이며(김정자 1994: 104-108)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서는 문체를 통해 작가의 개성,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출발어 저자의 문체를 보존하는 것은 번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헤밍웨이(Hemingway)의 병렬 구조 문체를 모두 종속 구조로 번역한다면 그 결과물이 과연 헤밍웨이의 작품이겠는가? 이러한 문체를 최대한 보존하고 재현하도록 돕는 것이 필자가 그라이스의 방법의 격률을 응용해 제시하는 방법의 격률이다.

방법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사례를 살펴보면서 논의를 이어가자.

방법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1

- (가) 나는 이 똑똑치 못한 옷차림의 꼬마들로부터 안쓰런 **춘궁(春窮)**의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신영복 2008: 11)
- (나) I remember I felt sorry for these shabbily dressed kids, which reminded me of the desolation of the **‘spring poverty’, the hardest period for farmers in early spring after all the food from the previous year’s harvest had dried up.** (조병은 옮김 2008: 10)

(가)에 나오는 ‘춘궁’이라는 간결한 표현을 (나)에서는 ‘spring poverty’로 옮긴 후 이에 대한 다소 장황한 부연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10) ‘author-adapted(저자-적응)’는 출발어 저자의 관점을 철저히 수용하고 그의 관점과 문체를 사용해 번역하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 양의 격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2장에서 살펴봤듯 양의 격률이 정보의 가짓수와 관련이 있다면 방법의 격률에서 다루어지는 ‘간결성’은 동일한 정보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관여한다. (나)의 경우 출발어 저자의 간결한 메시지 전달 방법과 상이하기 때문에 번역의 격률 중 방법의 격률을 위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계의 격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적 맥락 및 ‘spring poverty’ 자체에서 추론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도 부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보기 힘들며, 장황한 부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각주¹¹⁾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번역가가 임의로 부연한 부분이라는 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방법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2

- (가) 만일 “애 너 이름이 뭐냐?”라는 첫마디를 던진다면 그들로서는 우선 대답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불쾌감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뱅글뱅글 돌아가기 만할 뿐 결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영복 2008: 13)
- (나) Something like, “What’s your name?” would be no good because the boys would not feel the question important enough to answer, or, because they would fear they would become the object of laughter. Then I will never narrow the gap. (조병은 옮김 2008: 13)

(나)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번역과 반대의 경우다. 대화가 걸도는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출발어 저자가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표현한 반면 번역가는 최소한의 의미만을 ‘간결하게’ 전달했다. 정보 제공의 글이 아닌 이상 번역가는 저자의 전달 방법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방법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3

- (가) 공사관은 기름기가 자르르 돌고 있었다. (조정래 1981/2005: 203)
- (나) This construction project provided plenty of work. (Fulton 부부 옮김 2007: 181)

11) 문학 작품에서 각주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학술서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 대안으로 본문 내 대괄호 사용이나 미주의 사용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가)에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들고 있었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나)에서는 최소한의 의미만 풀어서 설명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 전달의 극대화를 위한 문체적 장치다. (나)처럼 번역을 하면 ‘말맛’이 사라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전술했듯,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는 출발어 저자의 문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분을 ‘gold mine to job-hungry men’과 같이 옮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²⁾

방법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4

- (가)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이효석 1983/1995: 15)
- (나) Well, as the bare earthen room of the inn was so hot, I got up and went down to the stream to have a bath. (신현송 옮김 1980: 24)

(가)의 경우 두 문장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번역가가 종속 구조를 사용해 두 문장 간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영어는 병렬 구조를 상당히 선호하는데 병렬 구조를 사용할 경우 글에 힘이 생기며 독자로 하여금 추론을 통한 참여를 유도한다(Fawcett 1997: 96-97). 이를 고려할 때 번역가가 임의로 문체적인 변화를 가한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출발어 저자의 병렬 구조 문체를 존중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방법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5

- (가) **한 삼십 분 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 준호와 그는 여덟 시쯤 일어나 세수를 하고 늦어도 정각 아홉시에는 출발하기로 약속을 해두었던 것이다. (최인호 1995/1996: 364)
- (나) The night before, he had arranged with Jun-ho to be awake around eight in the morning; after washing up they would leave no later than nine. **But now he could have slept another thirty minutes or so.** (Fulton 부부 옮김 2002: 8)

(나)를 살펴보면 출발어 저자의 정보 전달 순서에 큰 변화를 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타당한 근거를 찾기 힘들며 화자의 심리 상태가 전해지는 순서와 속

12) 그렇다고 해서 비유적 표현이 항상 비유적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하다거나, 또 무조건 그래야 한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도가 불필요하게 달라진다.

방법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6

(가) 그 중 세 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승옥 1965/2008: 33)

(나) Light was visible only in the three ones. (Pihl 옮김 2008: 32)

(가)의 경우, ‘세 개’는 테마(theme, 구정보)인 반면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는 레마(rheme, 신정보)이다.¹³⁾ 반면, (나)에서는 이 둘의 위치를 불필요하게 바꿨다. 정보 전달 구조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앞의 문장과의 연결선상에서 보자면, 테마-레마 순서가 대체로 지켜지는 영어 어순과 다르기 때문에, 정보 간의 결속성이 약화되었다. ‘Only the three ones had lights on.’이라고 번역한다면 출발어 저자의 문체도 살리고 도착어의 정보 결속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 6

(가) 내가 말했을 때 그는 그런가하고 웃었다. (공지영 1993/2006: 99)

(나) “Have I now?” he said, smiling. (풀턴 부부 외 2006: 47)

(가)의 간접화법¹⁴⁾을 (나)에서는 직접화법으로 전환했다.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을 화법(話法)이라고 하는데 간접화법은 문어체에 보다 가까운 반면 직접화법은 명백한 구어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출발어 저자가 선택한 화법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등장인물이 (나)의 큰따옴표 안의 내용을 그대로 말했으리라 단정하기 힘들다. (가)에서 사용된 간접화법은 타인의 말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로 바꾸어 그 내용만을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발화를 했는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상기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소설 장르에서는 문체 자체가 중요하기

13) 맥락을 살펴보면, 앞 문장에 이미 레마로서 ‘화신백화점 육 층의 창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 세 개에서만’은 구정보(테마=앞의 레마 또는 변형 형태)가 되고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는 신정보(새로운 레마)가 된다. 특히 영어에서는 구정보를 문장 앞쪽에, 신정보를 문장 뒤쪽에 위치시키는 구조를 선호한다.

14) 따옴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간접화법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출발어 저자의 정보 전달 방법을 최대한 존중하는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성과 모티브도 중요하지만 ‘말맛’은 주로 저자의 정보 전달 방법에서 나온다. 따라서 도착어의 문체론적 규범이 출발어 저자의 정보 전달 방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소설과 같은 표현적 텍스트 유형의 번역에 있어서는 출발어 저자의 관점을 철저히 ‘모방’할 필요가 있다(Fawcett 1996: 105-106).

6. 결론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은 언어학은 물론 의사소통과 관련된 여타 학문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대화를 넘어 텍스트 분석 및 작문 교육에도 접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라이스의 격률을 번역에 접목하고 응용해 한영 소설 번역 시 참고할 수 있는 번역 격률을 제시하고자 했다.

1장에서는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간략히 살펴본 후 ‘새로운’ 의사소통으로서의 번역이 내포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네 가지 번역 격률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양의 격률에 위배되는 번역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을 위해 번역가가 불가피하게 특정 정보를 첨가하거나 생략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양의 격률을 위배해 도착어 독자의 인지적 축적물 및 인지적 맥락으로 추론 가능한 정보까지 번역가가 과잉 공급할 경우에는 텍스트가 지루해지며, 생략을 할 경우에는 도착어 독자가 출발어 저자의 의도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예증했다.

3장에서는 질의 격률을 다루었으며, 이 격률을 위배할 경우 사실상 오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질의 격률을 위배할 경우 도착어 독자는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오인할 수 있음을 번역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고, 다른 격률과는 달리 이 격률을 위배하는 번역은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점을 논증했다.

4장에서는 관계의 격률을 살펴보면서 도착어 독자와 도착어 텍스트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번역가의 주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의 격률이 때로는 양의 격률과 상충 관계에 있음을 논증했다. 특히, 관계의 격률이 위배될 경우 의사소통 자체가 단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격률임을 주장했다.

5장에서는 방법의 격률을 다루었는데, 다른 번역 격률과는 달리 그라이스의 방법의 격률을 대폭 수정해 “출발어 저자가 출발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착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라”는 번역 격률을 제시했다. 이 격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비록 메시지는 전달된다고 할지라도 저자의 문체가 왜곡됨을 논증하려 했다. 물론 도착어의 문법 및 지배적인 문체로 인해 이 격률이 지켜지기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에 기초해 번역 격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번역 실무 지침, 그리고 번역 품질 평가의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 노력했으나 연구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필자의 경험과 학문적인 깊이가 얕아 다양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둘째, 번역 격률의 확립 및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언어 방향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격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넷째, 격률 사용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논하지 못했고, 격률을 고의로 위배하는 경우(flouting)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렇듯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며 부족한 점도 많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보다 정교한 번역 격률이 확립되어 번역가들이 직관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마련되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구현정 (2005) 『의사소통의 기법』, 서울: 박이정.
 김정자 (1994) 「문체와 문학」, 박갑수(편저) 『국어문체론』, 102-112, 서울: 대한교과서.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사.
- 정호정 (2001) 「공손어법의 언어문화특수성과 번역」,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5: 169-192.
- _____ (2002) 「번역 텍스트의 양적 확장 효과」,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4(1): 167-189.
- Anderson, J. (1986) 'Culture in relation to translation checking', *Notes on Translation* 111: 1-7.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Ellis, D. G. (1992) *From language to communic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awcett, P. (1997) *Translation and language: Linguistic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Goodman, K. S. (1982) 'Psycholinguistics universals in the reading process', in F. V. Gollasch (Ed.) *Language and literacy: The selected writings of Kenneth S. Goodman* (63-69), Boston: Routledge.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 P. & Strawson, P. F (1956) 'In Defence of a Dogma', *Philosophical Review* 65: 141-158.
- James, M. O. (1987) 'ESL reading pedagogy: Implications of schema-theoretical research', in J. Devine, P. L. Carrell & D. E. Eskey (Eds.) *Researching in reading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175-188, Washington, DC: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 Lederer, M.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Paris: Hachette.
- Neubert, A., & Shreve, G. M.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Omaggio, A. C. (1986)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Boston: Heinle & Heinle.

〈예문 제시에 사용된 출발어 및 도착어 문헌〉

- 김동인 (1925/1996) 「감자」, 구인환(편저)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1)』, 21-30, 서울: 신원문화사.
- O'Rourke, K. 옮김 (2000) 'Potatoes', 연세대학교 출판부(편저) *Ten Korean Short Stories*, 85-96,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승옥 (2008) 『서울, 1964년 겨울』, 서울: 한림출판사.
- Pihl, M. 옮김 *Seoul-1964-Winter*, 서울: 한림출판사.
- 신영복 (2008) 『청구회 추억』, 서울: 돌베개.
- 조병은 옮김 (2008) *Memories of Chung-Gu Hoe*, 서울: 돌베개.
- 이상 (1936/1996) 「날개」, 구인환(편저)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1)』, 213-239, 서울: 신원문화사.
- 안정효 옮김 (2001) *The Wings*, 서울: 지문당.
- 이효석 (1983/1995) 『메밀꽃 필 무렵』, 서울: 신원문화사.
- 신현송 옮김 (1980) 'The Buckwheat Season', 정정화(편저) *Modern Korean Short Stories*, 17-30, Hong Kong: Heinemann.
- 조세희 (1978/2000)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서울: 이성과 힘.
- 전경자 옮김 (2002)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서울: 지문당.
- 조정래 (1981/2005) 「유형의 땅」, 최원식, 임규찬, 진정석, 백지연(편저) 『20세기 한국소설 32』, 195-259, 파주: 창비.
- Fulton, B., & Fulton, J.-C. 옮김 (2007) 'Land of Exile', M. Pihl, B. Fulton, J.-C. Fulton (Eds.) *Land of Exile*, 176-214, New York: M.E.Sharpe.
- 최인호 (1995/1996) 「깊고 푸른 밤」, 류보선, 서영채, 권성우(편저) 『한국소설

문학대계58』(361-412), 서울: 동아출판사.

Fulton, B., & Fulton, J.-C. 옮김 (2002) 'Deep Blue Night', The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Ed.), *Deep Blue Night*, 7-72, 서울: 지문당.

최인훈 (1960/1989) 「우상의 집」, 책세상(편저) 『최인훈 대표작품선집』, 63-76, 서울: 책세상.

전경자 옮김 (2003) *House of idols*, 서울: 지문당.

최인훈 (1960/1989) 「웃음소리」, 책세상(편저) 『최인훈 대표작품선집』, 100-111, 서울: 책세상.

이상옥 옮김 (2000) 'The Laughter', 정정화(편저) *Modern Korean Short Stories*, 139-155. Hong Kong: Heinemann.

현진건 (1924/1996) 「운수 좋은 날」, 구인환(편저)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 (1)』, 70-83, 서울: 신원문화사.

O'Rourke, K. 옮김 (2000) 'A Lucky Day', 연세대학교 출판부(편저) *Ten Korean Short Stories*, 215-230,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황석영 (1973/2000) 「삼포 가는 길」, 김성은, 엄종선, 김명재(편저) 『황석영 중단편전집 2』, 200-225, 서울: 창작과비평사.

김유창 옮김 (2000) 'The Road to Sampo', 정정화(편저) *Modern Korean Short Stories*, 176-201, Hong Kong: Heinemann.

황석영 (2001) 『손님』, 서울: 창작과 비평사.

전경자 옮김 (2005) *The Guest*,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Abstract]

**Translation Maxims Based on Grice's Conversational Maxims:
Focusing on Korean-English Translation of Fiction**

Kim, Do-Hun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ranslation, the two sides of communication are the source text producer and the target text receiver, and the translator's role is to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process. As such, communication is at the heart of translation. Hence, if we apply Grice's Conversational Maxims—which set out certain conditions that facilitate communication—to translation, we will be able to come up with a useful translation guideline as well as a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ool.

This paper aims to put forward Translation Maxims that will serve translators and translation critiques. This research first revisits Grice's Maxims on which the author's Translation Maxims will be built. Since translation is a “new” and unique way of communication, Translation Maxims must accommodate and reflect the unique features that are inherent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is paper then seeks to illustrate how communication is frustrated or distorted when the translator violates each of the Translation Maxims. Also, this paper discusses wha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void a breakdown in communication.

The author hopes the Translation Maxims presented herein will contribute to characterizing the issues and problems in translation and to offering guidelines for those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

▶ Key Words: Communication, Conversational Maxims, Manner, Quality, Quantity, Relation, Translation Maxims

김도훈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부교수

kdh8377@pufs.ac.kr

관심분야: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2년 1월 26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